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2004년 봄 | 5호

특집 통일신라와당 | **박물관탐방** 화장미술관을 찾아서 |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도앵부
자원봉사를 하며 모나리자에게 보낸 나의 미소 | **유물사랑** 농경문청동기
답사를 다녀와서 구름으로 환생한 마츄피츄의 한 | **박물관 강의를 들으며** 선한 주름들의 만남
학술발표요지 고려시대 금은제와 청자 탁잔의 비교연구 | **유물기증** 베트남 도자기 구입기증
ICOM 2004서울대회 | **새 박물관 미리보기** | **한국박물관회는**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秦漢瓦當歌

금석문이 다하고 와당이 뒤잇더니
인간 역사 오래어서 이도 옛것 되었구나.
아! 시황의 역산비석은 이미 불 타 없어지고
西京의 八體만이 아직도 성하구나.
오늘날 李斯의 소전체를 공부하는 이들
이 마흔개의 와당글씨 읽어야 되네.

金石畢出瓦繼之
人世茫茫亦云久
嗚呼辣山碑已野火焚
西京八體徒紛秉
今之學爲小篆者
讀此四十瓦當文

朴齊家(1750~1805)
譯 : 편집실

처마 끝에는 연화장세계가

굴참나무의 껍질을 벗겨 지붕을 이어간 굴피집, 소나무를 켜서 지붕에 얹은 너와집. 수십 년 전만해도 흔히 볼 수 있었던 볏짚 얹은 초가. 드물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기와가 얹어지기 이전의 지붕모습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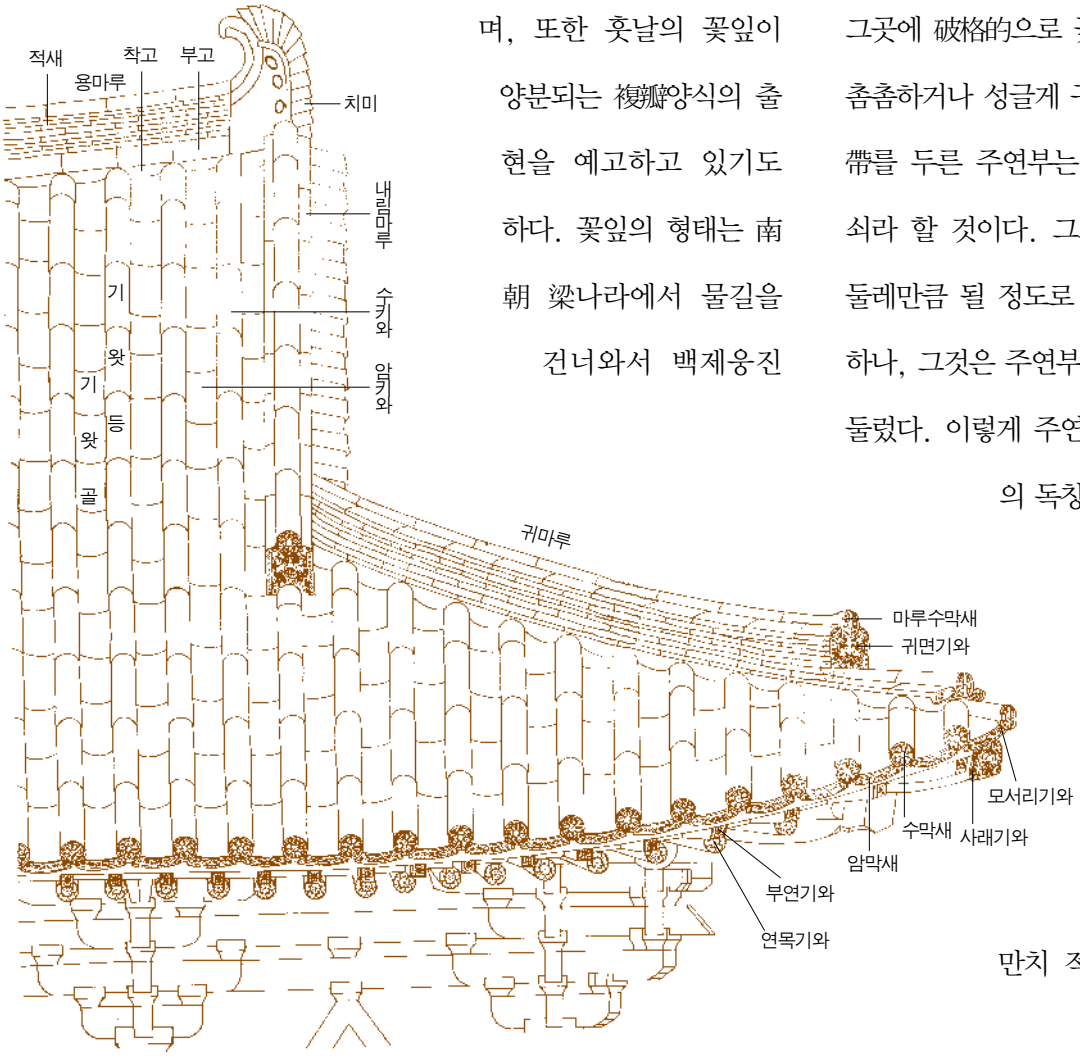
우리땅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집터는 신석기시대에 나타난다. 이 때는 처마가 땅에 맞닿아 있는 竪穴式구조였다. 땅을 파내려가 바닥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서까래를 모아 묶었다. 나무껍질이나 이엉 등으로 지붕을 이은 움집이었다. 철기시대로 접어들면서 건축기술은 많이 발전했다. 수천 년이 걸렸다. 지붕재료도 부식이 쉬운 식물성재료보다 더 나은 재질이 필요했다. 토기를 제작하면서 축적된 경험은 점토를 일정한 틀에서 뜬 다음 구워낸 土材로 지붕을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만들어졌을 기와. 그러나 기와는 우리민족 고유의 創製品은 아니었다. 이미 기와사용의 역사가 수백 년이나 돼, 거듭된 문양의 발달과 함께 완숙한 경지에 있던 중국에서 由來하였다. 기원전 2~1세기, 한반도북부에 漢 武帝가 한사군을 설치했던 그 무렵이다.

기와문화가 어떻게 신라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 '東萊에 태풍이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아다녔다'는 삼국사기 祇摩尼師今 1 1年 條에 보이는 문헌기록을 미루어 2세기에는 기와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정만 할 수 있게 할 뿐, 5세기나 되어야 암·수키와가 나온다.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서 6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수막새들이 月城垓字와 皇龍寺터, 月池 등에서 나온다. 꽃잎 끝이 날카롭고 폭이 좁으면서 量感이 강한 고구려계도 보이고, 넓은 꽃잎이 文樣部에 꽉 차게 메워진 백제계도 보인다.

또한 이곳에서 6세기 후반으로 보여지는 신라의 독자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통일신라

적 양식이 베풀어진 수막새도 출토되었다. 대체로 6엽의 花瓣을 돌렸는데, 각각의 꽃잎 한가운데에는 돋을 세로띠무늬로 둔덕을 이룬 稜線과 꽃잎 끝이 둥글게 曲面을 이루면서 마무리되거나 치켜 말려 올라가는 反轉수법을 보이는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이 능선은 고구려 꽃잎에서 陰刻線이던 것이 陽刻으로 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막새로 가름되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며, 또한 훗날의 꽃잎이 양분되는 複瓣양식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꽃잎의 형태는 南朝 梁나라에서 물길을 건너와서 백제웅진



시기에 발달한 양식이 신라에 전해진 것 같다. 고구려 백제에서 유입된 양식을 밑거름 삼은 결정체는 이런 꽃잎이 되어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게 統一新羅의 瓦當(막새)은 싹트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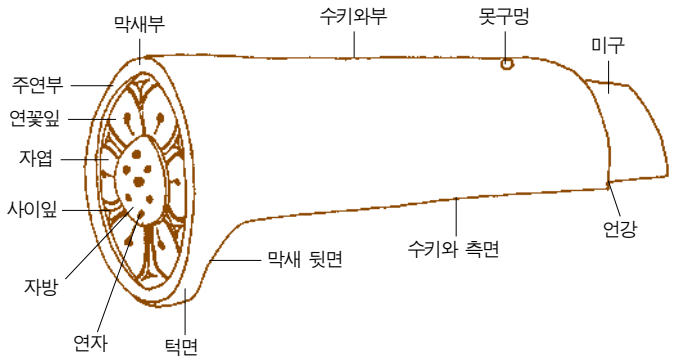
그 화려하고 섬세함의 시작이었을까. 바로 수막새의 周緣部다. 그 전까지는 素文이었다. 그래야 되는 줄로만 알았는지 어느 나라도 장식을 베풀지 않았다. 그것이 너무도 당연시 되던 자리였을 거다. 전보다 깊이가 얕아진 그곳에 破格的으로 꽃잎 꽃술 고리점무늬 등을 올렸다. 촘촘하거나 성글게 구슬을 심은 것이 가장 많다. 連珠文帶를 두른 주연부는 統一新羅瓦當의 가장 확연한 가늠쇠라 할 것이다. 그보다 앞선 北魏나 唐에서는 주연부 둘레만큼 될 정도로 큰 연주문대를 돌린 와당이 있기도 하나, 그것은 주연부로 나온 것이 아니고 문양부 외곽에 둘렀다. 이렇게 주연부에 문양을 올린 것은 통일신라만의 독창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수막새가 開發되고도 수 세기 후인 南北朝시대 때부터 보이는 암막새. 암막새의 출현이 왜 그리 더디었는지는 알 수 없다. 더구나 그 양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치 적다. 아마도 효용성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던가보다.

월지 주변에 造營된 東宮터와 四天王寺터에서 그 본격 제작의 시작점으로 여겨지는 암막새가 출토되었다. 드림의 폭이 뒤에 부착된 암키와의 두께와 동일하여 아직 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주연부도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접합기법이 정교하고 流麗한 古式당초문이 올려져 있다. 그러나 곧이어 드림의 폭이 암키와의 두께보다 넓어지면서 턱이 마련되고, 연주문대가 돌려져있어 주연부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암막새가 나온다. 드림에는 앞의 것보다 더 세련된 당초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수막새 턱 밑면에 올려진 문양과 조화되어 화려함을 더하기 위한 것인 듯, 올려다보았을 때 보이는 면에도 문양을 넣은 것이다. 이렇듯 암막새는 통일신라에 와서 비로소 화려하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암 · 수막새가 가지런히 자리한 처마아래에서는 椽木瓦가 지붕을 떠받쳐주는 둥근 서까래 끝을 장식하고 있다. 附椽瓦는 겹처마집에서 처마선을 올리기 위해 빼낸 네모난 서까래 끝에 올랐다. 처마근처를 浮游하는 꽃송이들처럼 보였을 연목와와 부연와는 자방이나 자엽자리에 뚫려 있는 구멍에 못을 박아 고정하였다. 추녀선을 반전시키고 있는 사래 끝에는 鬼面瓦가 앉아 邪惡한 기운을 야무지게 단속하고 있으며, 그 귀면와가 있는 추녀부근에서는 모서리기와가 처마어름의 곡선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지붕의 가장 높은 곳인 용마루 양 끝에는 세력 誇示와 함께 吉祥의 뜻을 담은 새 모양을 한 平尾를 세워 그 곡선과 반전을 치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곱새기와라고도 하는 望瓦, 타원막새와 마루암막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식기와들을 올렸다.

다양한 기와종류를 만듦과 더불어 문양의 전개도 백화가 만개하듯 하였다. 수막새에는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重瓣양식연화문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활처럼 약간 위로 휜 長方形 암막새에는 당초가 또 다른 문양을 품고서 유려하게 넝쿨을 뻗으며 쉼 없이 이어져 있다. 암막새 테두리에도 연주문을 돌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현란할 정도로 다채로운 문양의 발현, 그것은 진정한 統一新羅瓦當의 완성이었다.

통일신라와당 중에는 회흑색이나 짙은 흑색을 띄는 것이 있다. 한 번 구워낸 후 燻燒法이라는 소성과정을 한 번 더 거쳐 만들어서 강도나 방수효과가 좋다 한다. 훈

소법은 환원염 상태에서 송진이나 솔가지 등을 태워 생기는 연기를 표면에 흡착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대량생산과 다양하고 정교한 문양을 얻기 위해, 소성온도를 낮추려는 장인의 고심은 태토에 활석을 첨가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는 고온에서 구워 투박한 느낌을 주는 신라막새에서 섬세한 통일신라와당으로 발전하는데 크나 큰 자양분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치미, 연목와, 부연와, 망와, 암·수막새 등에 푸른색 유약을 입혀 구운 綠釉瓦는 특별하고 귀중한 의미를 지닌 아주 한정된 곳에만 쓰였지만, 통일신라와당에 따라다니는 화려함이라는 修飾語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마루용 귀면와에 가장 많이 施釉하여 지붕의 장엄미를 더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와당문화를 창출한 통일신라와당. 8세기 精華期를 頂點으로 9세기부터 문양은 생동감이 사라지고 추상화 경향을 보이며 퇴락해간다. 삼국시대부터 시문되어 온 鬼面文이 남아 장식성을 상실한 조선까지 이어지긴 했으나 人面文에 가깝게 변질되었고, 다양했던 기와종류도 하나 둘씩 사라져 갔다. 고려를 거치면서 치미는 취두에게 용마루를 물려주었고, 귀면기와나 곱새기와도 용두에게 귀마루자리를 내주었다. 사래귀면와는 토수가 대신하였다. 그마저도 조선에 와서는 각 마루의 등뼈를 구성했던 착고, 부고, 적새 등 마루기와조차 일부는 양성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연목와와 부연와는 단청에 밀려 사라졌고, 암막새는 역삼각형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치미와 곱새기와가 앉았던 자리는 망새가 메웠다. 어느 마루에나 얹혀질 수 있는 망새와, 귀마루 위에 줄지어 앉아 나쁜 기운은 물러가라고 호위하는 잡상은 조선이 새로 만들어낸 기와들이다.

지붕은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곳이며, 처마는 禍福이 그 집 사람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신성히 여겼던 옛사람들. 그 처마 끝에 연꽃을 피워 蓮華藏世界를 열었고, 자손 번영과 영광이 만대에 이르기를 염원하는 마음은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에 실어 담아냈다. 섬세함과 화려함으로 그리도 빛났던 통일신라의 와당은 그 자리에 멈춰선 채, 천여 년의 시공을 넘어 신라인들이 꿈꾼 세계를 말없이 전하며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海

꿈과 삶이 무늬되어

삼국유사에 따르면 헌강왕 때 성 안에 초가는 하나도 없고 기와집의 처마와 담이 서로 닿았으며, 기후가 사철 순조로웠고 길에는 노랫소리가 가득하여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한다. 봄에는 東野宅, 여름에는 谷良宅, 가을에는 仇知宅, 겨울에는 加伊宅이라하여 四節遊宅. 그야말로 태평성대다. 번성과 영화로움을 보여주는 기와지붕에는 다양한 모양이 있다. 유려한 선을 그리다 날렵하게 차고 오른 기와지붕. 웅혼한 기상을 느끼게 하는 용마루나 치미. 음양의 조화로 더 아름다운 기왓골과 기왓등. 그 골과 등을 타고 내려와 처마 끝에서 허공을 꾸민 瓦當. 태평성대를 누리던 신라인들의 꿈과 삶이 노래되어 하늘로 오르다 지붕 위에서 아름다운 무늬로 피어남인가.

와당은 지붕을 꾸미는 부차적인 것이지만 이에 무늬를 올리면서 고차원의 예술로 자리매김을 한다.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은 신라와당이 통일신라시대에는 현란하리만치 화려해지고 한없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서역문화의 유입으로 국제적 분위기가 팽배했던 唐과의 빈번한 문물교류를 통해, 보상화문, 포도문, 사자문 등 종전에 볼 수 없던 문양을 받아들이고 제작기법과 무늬도 독창적으로 발전한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古瓦史에서 한 획을 긋는 빛나고도 경이로운 수준에 다다른다. 통일신라와당은 가히 문양의 보고라 할 만큼 다채로우며 매우 아름답다.

신비로움과 풍요를 상징하는 연꽃을 시문한 수막새의 연화문 와당은 그 아름다움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식물계문양으로 통일신라 초기에는 삼국시대의 단순 소박함을 벗어나 복잡하게 변하고 문양의 볼륨감도 현저히 얕아진다. 또한 문양면과 周緣部의 홈이 사라지고 주연부에는 連珠文이 나타난다. 꽃잎은 다양한 모습으로 복잡하게 변하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어 안정된 느낌이다. 말기에 들어 연꽃은 단순화되어 국화와 비슷하게 변하며 전반적으로 생동감이 사라지고 추상적인 경향으로 흘러간다.

이 시기에는 홑잎의 연꽃으로 표현된 삼국시대의 古式單瓣 이외에도 複瓣, 細瓣, 重瓣, 混瓣 등의 다양한 형식적 변화를 보인다. 복판은 꽃잎의 중앙에 새겨진 능선이나 능각에 의해 양분된 채 각각 동일한 두 개의 子葉으로 표현되며, 세판은 꽃잎의 길이가 길고 폭이 좁아 細長한 모습이고, 중판은 두 연꽃잎이 세로로 겹쳐 얹히거나 서로 엇갈리면서 중첩된다. 혼판은 바깥쪽에 주로 보상화문이 올려지고 안쪽에는 연화문이나 인동문 등이 복합되어 나타난다. 중판과 혼판은 상당히 성행했는데 특히 중판양식은 통일신라와당의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태양숭배사상에서 기인된 연화문은 고대이집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삼국시대에 거의 만들어지지 않던 보상화문이 새로 나타남에 따라 비로소 와당예술은 완성의 경지에 이른다. 雙鹿寶相華文塼의 출현에 자극되어 수막새에 올려진 寶相華文은 전통적인 기와 문양을 크게 변화시키면서 통일신라 전 시기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반쪽의 팔메트(palmette)잎을 좌우대칭 心葉形으로 나타낸 가상의 꽃을 무늬로 올린 보상화문은 서역을 거쳐 唐을 통해 받아들였고, 복잡다양한 여러 무늬의 조합으로 8세기 중엽에 이르러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무후무한 화려함의 극치를 보인다.

이 외에도 수막새에는 여러 가지 동물무늬가 나타난다. 鬼面文과 더불어 길상과 벽사를 상징하는 獅子文은 수막새에 장식된 주요한 문양으로 출토품이 그리 많지 않아 기와의 수급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입상과 좌상으로 구분되는데 입상은 날개를 달고 있어 그 위엄을 한껏 더해주고 있다. 용, 봉황, 거북과 더불어 四靈이라 하여 상서로운 동물인 기린을 무늬올린 麒麟文은 타원형막새에서 보이며 瑞獸와 仁獸의 표상물로 많이 등장한다.

예부터 새는 영혼과 육신의 세계를 왕래하며 연락한다고 믿었다. 瑞鳥는 가릉빈가와 봉황새 등 여러 길조가 있는데 單鳥와 雙鳥로 표현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서역불교미술의 영향으로 좌우대칭 鳥文이 많이 나타나는데 瑞雲과 花文 등이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말기에 이르러 새의 형태가 점차 추상화 되어가면서 문양이나 구도가 복잡하게 변한다. 하늘을 나는 가릉빈가는 참으로 아름답다. 극락정토에 사는 人面鳥身像인 상상의 새를 문양화한 迦陵頻伽文은 신라인들의 불국의 염원을 실었다.

통일신라 초기부터 사용된 암막새는 곡선을 이루며 길기 때문에 무늬를 올리는데

01

02

03

04

05

06

07

08

비교적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덩굴 같은 당초문이 새겨졌으나 점차 보상화, 인동, 포도 등과 조합되어 다채롭게 나타난다. 유려함으로 공간감을 살려 조화미가 한층 돋보이는 唐草文은 넝쿨풀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의장화한 것으로 영원과 번성을 의미하는 主葉과 枝葉이 연속으로 굴절되고 파생하며 반전되는 모양이다. 내향대칭형과 외향대칭형으로 주로 띠 모양이나 環狀의 좁고 긴 공간을 메우는 장식으로 널리 쓰였다.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아시아 전역에 걸쳐 건축과 공예의 장식문양으로 폭넓게 이용되었다. 또한 식물계문양으로 인동문과 초화문이 있는데 당초문의 일종인 忍冬文은 화문과 덩굴무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草花형식이다. 수막새와 암막새에 단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보상화문과 더불어 쓰이기도 한다. 그 밖에도 몇 점 안되는 보살상문이나, 불상문, 人面文, 蟠螭文, 文字文들이 있다.

이렇듯 통일신라와당은 이채롭다. 옛사람들이 꿈꾸었던 삶이 다양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평안과 번영을 바라던 신라인들의 소망이 지붕의 처마 끝에서 예술로 승화되며 두 번의 천년을 넘긴 오늘에 되살아나고 있다. 그 무늬로 하여 통일신라는 더욱더 아름답고 찬란하다. 단아한 듯 화사한 와당을 보며 그 옛날 와공의 열정과 심미안에 그저 감탄할 뿐. M화

09

01 연화문수막새, 영묘사지, 지름 13.9㎝, 두께 1.8㎝
02 연화문수막새, 안압지, 지름 15.0㎝, 두께 1.4㎝
03 연화문수막새, 석장사지, 지름 15.3㎝, 두께 2.6㎝
04 연화보상화문수막새, 지름 14.4㎝, 두께 1.5㎝
05 보상화문수막새, 지름 11.8㎝, 두께 1.7㎝
06 보살상문수막새, 현재길이 17.6㎝, 두께 1.6㎝
07 가릉빈가문수막새, 지름 17.0㎝, 두께 2.0㎝
08 재성명수막새, 지름 15.8㎝, 두께 1.2㎝
09 포도당초문암막새, 안압지, 너비 30.1㎝, 높이 6.9㎝

옛 여인의 향기— space*c 化粧미술관을 찾아서

국화문모자합, 고려시대

독특한 개성의 바람은 박물관에도 불고 있다. 옛 것을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박물관이란 속도와 변화를 추구하는 요즘 사회에서는 조금 비켜 있는 공간이다. 더욱이 서울의 강남권은 인사동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의 흐름과는 반대편에 서있는 듯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space*c"라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열리면서 이 지역에 또 다른 문화의 색깔을 더하고 있다. 옥상 정원과 7층까지의 계단이 유리담에 싸여있어 하늘 길을 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 건물에는 化粧미술관과 갤러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화장미술관은 화장 용구를 전시하는 전문박물관으로 옛 여인들이 쓰던 화장구와 장신구를 중심으로 도자기가 함께 전시되어 있다. 또 갤러리에서는 현재 백남준을 비롯한 현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아름다움으로의 여행이 가능한 곳이다.

화장미술관에는 두 개의 전시실이 있는데 먼저 化粧史館에는 구리거울과 유병, 분접시, 분항아리 등의 화장구와 노리개, 뒤꽂이, 비녀 등의 장신구가 바느질도구와 함께 전시되어 있다. 마치 정갈하면서도 잘 차려진 옛날 안방에 들어선 느낌이다. 陶瓷전시관에는 삼국부터 조선시대까지 아우르는 도기와 국보급 보물인 불경이 있다.

먼저 화장구로는 기본 도구인 거울과 빗을 비롯해서 분과 기름을 담는 그릇들이 있다. 화장도구는 통일신라시대의 것부터 있는데 각 시대별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고려시대의 청자로 된 분접시와 유병, 분항아리 등은 섬세하면서도 그윽한 멋을 풍기고 있다. 특히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보관하기 위한 母子盒은 그 이름처럼 큰 합 속에 작은 합이 여러 개 들어있는데 국화문을 아로새긴 큰 합처럼 작은 합도 상감기법으로 국화문을 새겨 넣었다. 요즘의 화장품 회사들이 용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들었음직한 화장 그릇이다.

조선시대의 화장구는 주로 후기에 만들어진 청화백자들이다.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크기가 작아지고 모양이 사각이나 육각등 각이 진 형태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粉水器라고 불리는 작은 물그릇은 분을 갤 때 쓰는 물을 담았던 것으로 남성들이 사용하던 연적과 그 쓰임과 모양이 비슷하다. 그러나 연적보다 훨씬 작으며 모양도 직선 위주의 각이 진 형

태가 많아서, 복숭아나 둥근 모양이 일반적이었던 곡선형의 연적과 재미있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분접시도 둥근 모양이 아니라 사각이나 육각으로 각진 접시가 많다. 여성들이 쓰던 화장구는 각진 모양으로 남성들의 문방구는 둥근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문득 궁금해진다. 이처럼 크기는 작지만 화장구들이 건네는 이야기는 끝이 없는 듯 하다.

장신구 역시 단장에 들이는 시간만큼이나 공들여서 보아야 한다. 입구에 진열된 뒤꽂이들과 노리개는 옛 여인들의 치장이 요즘 못지않게 화려했음을 보여준다. 봉황 세 마리가 나는 듯이 떨고 있는 영락 비녀는 왕실에서 의식 때만 사용하던 것으로 도금된 꽃잎에 산호 진주 등이 어울려있는 최고로 화려한 비녀이다. 뒤꽂이도 밀화와 칠보 등으로 꽃과 나비를 만들었다. 댕기와 비녀, 뒤꽂이 등을 보면 옛 여인들은 앞모습 못지않게 뒷모습에 신경을 써서 꾸몄음을 알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은 잘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는 뒷모습을 단장하는데 더 공을 들인 듯하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소홀함이 없었던 그들의 찬찬하고 야무진 손길들. 옛 여인들의 잘 다듬어진 깊은 아름다움은 유물 곳곳에서 배어나온다.

비녀, 조선시대

도자전시관에서는 백자 양념항아리가 눈길을 끈다. 작은 항아리 세 개를 붙여 만든 이 항아리는 뚜껑에서부터 아래까지 세심하게 佛手柑 문양을 그려 넣어 달항아리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정교한 멋을 드러낸다. 이 밖에도 삼국시대의 토기와 고려청자를 비롯해서 조선의 백자도 전시되어 있다. 또 1046년 만들어진 국보 초조본대반야바라밀다경과 보물로 지정된 묘법연화경도 있어 고려시대 목판인쇄의 진면목도 함께 살필 수 있다.

後綬, 조선시대

화장미술관은 한 화장품 회사의 경영자인 兪相玉회장이 30년간 모은 오천여점의 수집품을 바탕으로 문을 열었다. 자신의 직업과 취미가 이처럼 멋지게 어울리면서 그는 선조들의 미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장을 마련했다. 한국박물관회 회장이기도 한 그가 박물관을 열면서 밝힌 소감을 옮겨본다. "월급을 쪼개 쓰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점 한점 그 수를 더하는 일에 흥미와 보람을 느꼈고, 천년 백년의 세월을 넘나들며 시대를 초월하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엿보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수백 년 전 거울 속에서 나는 조선 여인의 삶을 보았고 그보다 더 오랜 장신구의 손때를 통해 상상 속 여인의 일생을 엿보았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아름다운 것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한다.
그것이 이미 지난 과거의 것이라도. M진

陶溺賦

李 奎 報 (1168~1241)

(竝書) 내가 조그만 질항아리 하나를 가졌는데 술을 담아도 변하지 않아 몹시 보배롭게 귀히 여긴다. 또 내 마음에 헤아리는 바 있어 賦를 지어 노래한다.

내가 가진 항아리는 쇠를 두들기거나 녹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 흙으로 빚어 불로 굽고 틀을 떼내어 만들었다. 목은 잘록하고 배는 불룩하며, 구연은 笙簧의 부리같고 손잡이 없는 병과 비슷하다. 병이라고 부르기엔 구연이 너무 퍼졌고, 갈지 않아도 반짝이며 옻칠한 듯 새까맣네.

금접시가 무엇이 진귀할까. 질그릇이라도 모자람 없네. 무게가 적당해 한손으로 들기 좋고, 값싸고 구하기 쉬우니 깨어진다 해도 원망스럽지 않네. 가득 채워도 술 한 말 못미치나 차면 곧 비워지고 비면 또 받아 채우네. 고열에서 정교히 구워져 젖거나 새는 법 없고, 옆이 트여서 막힘이 없이 좋은 술을 내고들임이 능하네. 따르기 쉬워 넘어지거나 엎어지지 않고, 채우기 쉬우므로 술이 계속 담겨져 돌아보니 평생 담긴 술이 몇 섬인지 셀 수도 없다네.

마치 군자가 언제나 겸허히 덕을 쌓아 미혹되지 않는 듯하네. 아! 小人이 재물에만 집착해 우매하게 두소(斗擧)같은 작은 그릇인 줄 모르고 끝없이 욕심부려, 쌓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고서 오히려 부족하다 하니, 작은 그릇이 금방 차서 곧 넘어져버리네. 내가 이 질항아리를 옆에 두고 가득 차 넘침을 경계하며 자신에게 힘써, 분수를 헤아리고 정도에 맞도록 해야 一身과 奉祿이 편안하리라.

자라병 : 물이나 술을 담아가지고 다니던 병,
높이 8㎝, 목둘레 11.5㎝, 둘레 72㎝

陶溺賦

(竝書) 予蓄瓦溺 以酒不琥味 甚珍而愛之 且有所況 爲賦以興之.

我有小溺 非鍛非鑄 火與土以相熬 落熬埴而乃就. 頸了腹槍 視邸笙理 譬之唳則無耳 謂之稚則圻口 不磨而光 如漆之産. 何金皿之是珍 雖瓦器其不陋 適重輕以得宜 合提苛於一手 價甚賤而易求 雖破碎其曷咎. 盛酒幾何 未盈一斗. 滿輒斯懣 虛則復受 由陶熟而且精 故不淪而不漏. 由旁通而不咽 能出納乎醇酎. 由能出故不傾不覆 由能納故貯酒斯績 顧一生之攸盛 卿難算其幾斛. 類君子之謙虛 秉恒德而不惑. 嗟小人之徇財 棧斗擧之局促 以有涯之量 癲無窮之欲 積不知散 猶謂不足 小器易盈 顚沛是速. 予置斯溺於座右 戒滿溢而自別 庶慟分循涯 惜全身而持祿.

蛇足 | 이즈음 주변을 둘러보면 제 분수를 모르고, 공부는 하지 않고 전문가인 양 많이 아는 척하거나, 능력은 모자라면서 자리만 탐내거나, 小人의 마음으로 君子然하는 인간들이 많다. 필자는 이에 비해 욕심없이 자기 일에 충실하며 덕을 쌓는 사람을 질박한 질항아리에 비유했다.

질그릇은 우리 민족의 생활사에서 긴 세월 함께 해온 魂이 서린 문화재로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제작되고 있다. 자기를 내세우는 일 없이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옆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소박한 질항아리를 德있고 겸허한 군자에 비겨 노래했다. 각박한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뜻있게 읽을만한 글이다. (飜譯 · 蛇足 : 曙山)

모나리자에게 보낸 나의 미소

김 소 미 | 교육진행 자원봉사

파리 드골 공항에 도착 했을 때 나를 반기는 건 부슬부슬 내리는 겨울비였다. 하지만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나는 활짝 갠 맑은 날 같은 기분이었다. 들뜬 기분에 밤잠을 설치고 아침 일찍부터 파리의 전철 지도를 보며 찾아간 곳은 루브르 박물관. 개관시간이 되고 박물관 문 앞 관람객의 긴 줄이 점점 줄어 하루를 루브르에서 보고 즐길 걸 생각하니 내 가슴은 콩당콩당 거렸다. 소위 세계 몇 대 박물관 안에 든다는 몇몇 유럽의 박물관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그 규모나 전시물의 양에 입을 다물 줄 모른다. 하지만 자국의 유물과 미술품 보다 더 많은 양의 외국 유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약간의 실망과 분노(?)를 느끼곤 한다. 더욱 화가 났던 건 우리나라에서 유출된 훌륭한 문화재들은 이집트나 중국의 유물같이 전시되지 못하고 그저 수장고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루브르, 내가 그 곳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그 두꺼운 방탄유리에 갇혀 커다란 벽면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의 신비스런 미소도 아니고,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커다랗고 두꺼운 책인 줄만 알았던 '함무라비 법전' 이라는 거대한 돌비석도 아니었다. 어떤 그림 앞에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느라 눈을 크게 뜨고 있던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질문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발표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여기가 교실이라는 착각마저 들게 했던 광경이었다. 무슨 때만 되면 그냥 시간만 때우려는 듯 우르르 박물관으로 몰려와 단 몇 십분 만에 휙 지나가버리고 마는 우리 학생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발걸음을 옮겨 다른 전시실로 가는 도중 이번엔 자갈 구르는 듯한 꼬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계 어디를 가든 꼬마들은 모이면 떠드는구나 생각하며 다가갔던 나는 또 한번 놀랐다. 그 곳에서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서로 발표하겠다고 선생님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아 부러워라…… 박물관을 교실의 일부로 생각하는 이 곳의 교육 환경이 너무나도 부러웠다. 더욱이 나이 지긋한 분들이 취미삼아 스케치북에 유명한 그림들을 스케치 하는 모습이 얼마나 여유로워 보이던지……

잠깐 피곤한 다리를 쉬게 하려고 로비가 훤히 보이는 카페테리아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커피 한잔을 마시며 우리의 박물관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의 박물관은 학교 교육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 학교에서는 박물관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을까? 박물관은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을까?

교육부의 직원도 박물관의 직원도 아닌 내가 우리 박물관의 현실에 대한 답을 정확히 펼쳐 놓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우리의 박물관은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았고, 더욱이 학교에서는 박물관에서의 교육에 대한 이해나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이는 아마도 학교에서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학교에서 생각하는 박물관은 학교 수업의 연장선상으로의 장소가 아니라 그저 자율 학습이란 미명아래 하루 때우기용 장소로만 인식하고 있는 듯 했다. 그렇다면 박물관이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수 년 동안 박물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바에 의하면 박물관에서는 특별전 이외에 관람 후기공모나 미술대회, 박물관신문 발간, 학술강연, 전통문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더욱이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박물관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박물관에서 운영중인 행사에 참여 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이제 곧 국립중앙박물관이 거대한 규모로 지어지는 용산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큰 규모의 박물관도 꼭 필요하겠지만 지역적인 소규모의 박물관을 많이 지으면 좋을 것 같다.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지역사회 박물관이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수업시간을 이용한 교육의 장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사색의 장으로 바람직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인력은 전문적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박물관에는 전시실안내, 유물정리, 도편정리, 회지발간, 교육진행 봉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문화 혜택을 누리려면 분야별로 전문 봉사자가 절실한 것 같다. 한 발 더 나가서 장애우를 도울 수 있는(특히 청각, 시각장애우) 봉사자의 수가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물관의 교육 진행봉사자 모집에 주저 없이 지원한 것은 루브르에서 생각했던 모든 것을 조금이나마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였다. 루브르박물관에서 감명 깊었던 장면을 우리의 국립박물관에서도 매일 매일 흐뭇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모나리자를 찾아가 나의 미소를 보냈다.

농경문청동기

대전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며, 하반부가 결실되어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다. 윗부분 가장자리에 여섯 개의 네모난 구멍이 있는데 양끝의 두 개가 많이 닳아 있어 매달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면 모두에 가장자리를 따라 密集線의 陰刻文樣帶를 배치하였으며 중앙에 세로로 格子文帶를 배치하여 한 면을 좌우로 구분하였다.

한쪽면의 왼쪽에는 세로 방향으로 난 帶狀 꼭지가 붙어 있고, 거기에 가는 줄 여러 가닥을 꼬아 만든 고리가 달려 있다. 오른쪽은 많이 결실되었는데 왼쪽과 동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남아 있는 고리의 위쪽에 Y자형으로 갈라진 나뭇가지가 표현되어 있으며 그 끝에는 새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매 또는 독수리로 추정되는 이 새들의 몸에는 점이 찍혀 있으며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새는 '샤머니즘'에서 많이 등장한다. 시베리아의 여러 종족들에게 새는 '샤먼'의 의지를 따르고 수행하는 使者를 상징한다고 한다. 또 예니세이(Yenisey)족은 매를 특별히 숭배한다고 하며, 독수리는 야쿠트(Yakut)족 사이에서 대장장이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대장장이와 샤먼은 동일한 기원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도 잘 전승되고 있는 솟대의 가장 오래된 모습임에 틀림없다.

다른 쪽의 왼쪽 면에는 항아리를 앞에 두고 사람이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사람의 머리에는 가늘게 상투 같은 것을 틀고 있으며, 손에도 무엇인가 들고 있으나 부

식이 심하여 알 수 없다.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무엇인가 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확한 곡물을 저장하고 있는 듯도 하다. 항아리는 납작바닥인데 胴最大徑을 器腹部에 두고 아가리 쪽으로 급하게 오므라들어 병 모양을 하고 있다. 주둥이에는 끈이 묶여져 있는 듯하며, 몸통 전체에 斜格子文을 음각하였다.

오른쪽 면 위쪽에는 사람이 두 손으로 농기구를 잡고 한쪽 발을 농기구에 얹어 놓고 밭을 일구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머리에는 긴 깃털 같은 것을 꽂은 모습이다. 다리 사이에는 지나치게 강조된 男根이 삼각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고랑과 두둑을 새겨 정연한 밭 모양을 표현하였는데, 열두 번째의 이랑을 갈고 있는 중이다. 사용하고 있는 농기구는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 뒤이은 三韓때 나타나는 따비의 모습과 꼭 닮았다. 그 아래에는 또 한 사람의 상반신이 묘사되어 있다. 두 손으로 괭이를 치켜들고 있는데 대단히 역동적이다. 얼굴은 옆모습만 표현하였는데 머리 부분을 반달형으로 나타내었다. 밭갈이하는 사람과 괭이질하는 사람은 남자를 표현한 듯하다.

이것과 형태가 비슷한 청동기로는 大田 槐亭洞과 牙山 南城里에서 출토된 방패형 청동기가 있다. 이들 유물들은 모두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물들이다. 대체로 기원전 4~3세기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 있는 형태는 오르도스, 남러시아, 한반도, 일본에 까지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새가 인간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한다는 상징성과 샤먼신앙과 관계되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다. 밭을 가는 형상은 이 시기에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따비나 괭이를 사용하여 밭을 갈 줄 알았던 고도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 방패형동기는 농경의례 때 지도자격인 인물이 하늘에 제사지내며 생산의 풍요를 빌 때 사용한 일종의 巫具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역할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된 사람의 모습에서 한국인 최초의 농부, 주술인의 얼굴을 엿볼 수도 있겠다.

이것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농경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유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형태는 특이한 선각으로 묘사되어 있다. 나타나는 따비나 괭이의 실물자료도 없다. 더구나 항아리의 기형도 이질적이다. 지금까지 출토된 어느 기형도 이와 닮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결실되어 알 수 없는 부분과 함께 더 신비롭고 귀하게 여겨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항아리 앞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있는 인물을 여성으로 추정하고 싶은 것도 대지와 곡식의 여신 데미테르(Demeter)와 그 딸인 페르세포네(Persephone) 모녀의 슬픈 이야기를 연상하는 나만의 잡념인지 모르겠다.(국립중앙박물관, 남은 길이 7.3㎝, 너비 12.8㎝)

2004.1.30, 雲門

구름으로 환생한 마츄피츄의 恨

최 경 자 | 회 원

비행기를 타면 창 밖을 볼 수 있는 행운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훔쳐보듯 스치는 구름들의 움직임은 여행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다. 긴 시간 구름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점 하나씩을 찍어 내려가듯이……. 심술궂은 구름이 잠시 내 시야를 가리면 순간 눈꺼풀이 내려앉는다. 꽃냄새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승무원의 향기였다. 얼마쯤 왔는지 붉은 노을빛의 따스함과 옅은 색에서 짙은 주홍색으로 변하는 순간의 경관은 대담한 붓터치로 표현하는 딸아이의 그림 같다. 한 시간이 넘도록 지속되는 행운을 안고 동행할 수 있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감사한다.

페루 입국은 우리말 인사 한 마디에 감동해 기분이 좋다. 리마(왕의 도시)는 스페인의 정복자 피사로가 잉카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운 도시로 페루의 수도다. 남태평양의 사막 탓으로 겨울에 가랑비가 내리면 그들은 잉카의 눈물

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를 환영하는 비를 맞으며 그들과 추억의 사진을 찍는다. 내가 갖고 싶었던 폭스바겐이 티코와 함께 택시로 이용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독수리여 날개를 펄럭이다' 라는 삭사이후와만 요새가 있는 쿠스코(배꼽)는 잉카제국의 수도이며 정교한 석축문화를 자랑한다. 수천 마리의 새가 날아와 죽는 안데스 산맥 밑자락의 페루 해안을 배경으로, 생에 지친 남녀의 러브스토리와 한 가닥 삶의 희망을 글로 표현한 프랑스 작가를 기억하며, 레스토랑에서 내 귀를 감미롭게 하는 노래에 취했다. 오얀타이탐보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는 유년시절에 보았던, 기적소리를 내며 들판을 달리는 추억의 기차다. 우르밤바 강을 따라 하늘도 보이지 않는 웅장하고 거대한 봉우리들. 입체감이 살아 있는 아이맥스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을 만끽하면서 사색에 잠긴다. 고산병 증세인지 가슴이 질식할 듯 내리누르는 답답함에, 긴 숨을 들이마시며 잿빛 하늘에 시선을 돌려도 진정되지 않는 이 외로움은 어디서 연유한 것인가.

마추피추는 스페인 정복 이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잊혀진 도시였다. 잉카의 공중도시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 이곳에 왔다. 큰 나무에 이름 모르는 꽃이 수세미가 달린 것처럼 땅을 바라보고 핀 것이 이색적이다. 원주민과 소녀의 호객 행위에 타이어를 잘라 만든 신발을 신은 것이 연민으로 다가와 아주 잘 생긴 박공예 한 점을 샀다. 집에 있는 짝꿍을 구한 셈이다.

눈 앞에 보이는 마추피추! 아무 느낌도 없이 머리가 텅 빈 상태다. 순간 神仙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 눈을 감아버렸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왔으니 가슴에 묻어 두었던 그리운 사람을 한순간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구름의 속도가 빨라진다. 내 마음을 읽은 것인지 드러나는 것은 와이나피추다. 거대한 석조도시로 이곳을 궁전이나 신전으로 사용했을까? 잉카인들은 모양도 다른 돌들을 정확하게 잘라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돌과 돌 사이를 종이 한 장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붙인 기술은, 돌 사이에 젖은 모래를 넣고 비벼서 표면을 매끄럽게 갈았다고 하니, 그 엄청난 노력의 대가로 남은 수준 높은 도시건축 기술에 감탄한다. 신전에 제물로 죽음 앞에 선 여인은 선택된 자신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죽었는지 죽음을 위해 삶이 존재한다는 것, 또 다른 이념의 변화를 찾지는 않았나 보다.

恨맺힌 魂은 하루에 몇 번이고 하얀구름의 천의를 갈아입고 마추피추를 누비며, 찾는 이의 마음에 잠시 머물고 사라지는 한 조각의 구름으로 환생했을까? 스페인 정복자들의 파괴의 손길도 닿지 않는 유일한 잉카의 유적으로 남아 영원한 미스테리로 찾아오는 나그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리마의 거리

선한 주름들의 만남

박 미 령 | 특설강좌 수강생

꼭 스물여섯 해 전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박물관 강좌 1기에 겁 없이 신청서를 들이밀었다가 정중한 거절편지를 받고 실망했었다. 변심한 애인을 응징하듯 그동안 이 강좌를 애써 외면했다. 하긴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여유도 없었다. 둘째가 대학에 가고 이젠 시간도 있고 마음도 풀려 여기 나오게 되었다.

첫 시도의 아픈 기억이 있어 혹여 밀어낼까 봐 아침 댓바람에 달려왔더니, 내 앞에 3명 밖에 없었다. 구성원은 거의 내 나이 또래나 그 이상이었고, 간간이 기특하고 부럽게도 어린 학생이나 젊은 엄마들이 있었다. 부러운 건 부부가 함께 들으며 필기한 것 건너다 보기도 하고, 졸고 있는 짝 깨워가며 소곤대는 모습이다. 꽤 연세가 들어 뵈는 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우리가 그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좋은 나이의 후배들에게 꿈을 주듯이…… 그 분들이 보시기에 우린 못할 것이 없는 나이가 아닌가!

누가 이 시대의 아줌마들을 허영과 돈 밖에 모르는 속물덩어리라고 업신여기는가? 누가 한국의 앞날이 어둡다고 감히 장담하는가? 누가 우리를 할 일 없이 시간만 죽이는 수다쟁이로만 보는가? 와서 보라! 난 이 강좌에 나오면, 기분이 안 좋을 때 재래시장을 걸으며 느꼈던 그 풋풋한 힘이 느껴진다. 식욕이 많은 것을 대신하는 이 나이에,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때우고, 4시간을 200명 남짓한 중 장년의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 앉아, 필기해 가며 듣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누가 시킨 일도 아닐텐데 강의에 열중하는 그들을 보며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교수님들 또한 존경심을 금할 수 없다. 희끗희끗하고, 솎아낸 배추 잎 모양 듬성듬성한 머리카락들을 보며, 젊을 땐 베토벤 머리 같던 내 남편의 숱 없는 머리를 떠올린다. 머리가 저렇게 되도록, 메아리도 없는 무생물들과의 사랑을 그리도 오래 했단 말인가? 대체 돌비석이, 사상이, 문화가 뭐길래? 그토록 오랜 기간을 짝사랑 하다보면 권태기는 없었을까? 싫증은 안 났을까? 질릴 때도 있었을텐데…… 그 긴 세월의 노력

과 연구에 비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에서 어느 구도자의 삶이 느껴져 한 마디라도 허술히 들을 수가 없다. 그 인고의 노력으로 재물을 모았다면, 어느 재벌 부럽지 않았을텐데……

역사를 배우고 유물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지 않아 알 수 없었던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의 만남만큼 경이롭고 호기심을 유발시켜 신이 난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영혼의 먼지를 떨어내고 환기를 시킨 듯 개운함마저 느껴진다. 고매한 교수님들로부터 맛보기 식으로 나마 들은 강의 덕분에, 이젠 눈 뜬 장님이 약간의 시력을 되찾아 안보이던 것이 보이고, 아는 척도 하고 싶고, 진짜 다른 것도 보이나 싶어 여기저기 사적지를 돌아다니고 싶어진다. 더욱 내가 생각해도 가소로운 것은, 그 곳에서 잠시 사학자나 문화재 보전학자로 자신을 착각하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물이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두리번거리고 문화재나 유물을 훼손하는 자가 있지 않나 감시하는 나의 모습이다.

내가 이 강좌를 들으며 배울 수 있던 것은 비단 강의내용 뿐이 아니다. 다이너마트를 발명한 노벨이 그 원료인 니트로글리세린을 말년에 심장약으로 유용하게 쓰듯, 오염된 세균 접시에서 우연히 페니실린을 얻어내듯, 오랫동안의 외길 인생 끝에 교수님들은 나름대로의 환경철학이나 인생철학이 생기셨나보다. 덩달아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쓰레기, 물, 오물처리 같은 환경문제나 쌀, 토양, 돌, 기후, 제례문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다양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 교실엔 조용한 내면의 '기'가 있다. 골막치 끼고 삭혀진 묵은 김치 같은 한국의 '기' 말이다. 그건 교수님들과 우리들의 얼굴에 있는 주름에 서려있다. 주름은 고대 의상의 권위의 상징이 아니던가! 오랜 세월을 열심히 살아낸 분들의 주름은 자연스럽고 곱기만 하다. 풀칠한 얼굴 같은 성형미인이 어찌 그 아름다움을 따를 수 있단 말인가! 하긴 아름다움도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라 이건 내 눈에 안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비웃는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이 내 나이가 되어보라. 그 때는 조금은 공감하리라.

고요하게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차오르는 풋풋한 힘의 물결을 따라 어느새 난 다짐한다. 이젠 정말 돈보다 귀한 시간을 아껴 써야지.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내가 행복하고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더 아껴줘야지. 더 사랑해야지. 나는 모른다. 대체 이 강좌의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드는지. 도대체 이 교실의 어떤 기류가 날 이렇게 기쁘게 만드는지…….

고려시대 금은제와 청자 탁잔의 비교연구

정 상 기 | 국립공주박물관

액체를 담는 작은 그릇을 盞이라고 한다. 보통은 잔으로 통용되나, 한자어로는 盞, 杯, 盃 등을 통칭하여 쓰며, 일반적으로 盞이나 杯는 불로 구운 도자기 재질을 말할 때 쓰이며, 굽이 있는 그릇이라는 의미이다. 잔은 원래 뚜껑의 있고 없음, 굽의 있고 없음, 손잡이가 있고 없는 형태로 구성되는데, 잔반이나 잔대가 갖추어진 형태에 따라 탁이라는 받침대가 첨가되는 것도 있다. 잔과 잔뚜껑, 잔대가 갖추어진 형태를 탁잔이라 하는데, 무령왕릉 출토품에서 그 유래가 보이기 시작한다.

무령왕릉 출토 탁잔과 유사한 綠釉托盞은 나주 복암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것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통일신라시대인 7세기에 제작된 보물 제453호 녹유탁잔이 있다. 백제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본지역에서도 동제탁잔이 현재 약 10여기가 알려져 있는데, 이들 일본지역에서 발견된 탁잔들은 재질과 구조에 있어서 한반도 출토품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백제 무령왕릉 출토 동탁은잔을 비롯하여 한반도 출토품들은 구조가 잔, 잔두껑과 함께 잔받침대로 구성되어 고려의 금속공예품으로 제작된 탁잔이나 청자탁잔의 盞, 盞座, 托의 구성과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형태 역시 고려의 탁잔은 잔과 탁이 비슷한 크기로 제작된 반면에 고대의 탁잔은 탁보다는 잔과 잔두껑이 훨씬 큰 구조로 제작되었다. 시대를 이어서 계속 제작된 이러한 탁잔들이 고려시대에 금속제품과 자기류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금속제 탁잔과 청자 탁잔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탁잔의 제작시기와 기원에 대한 연구는 현재 거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 金銀製 탁잔과 靑磁 탁잔이 제작되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금은제 및 청자 탁잔의 발전과정 및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고려시대를 통틀어 금속 및 도자관련 수공업이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국가에 의한 관영수공업 및 所의 공납수공업이 전기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12~13세기 무인의 난과 몽고와의 전쟁관계로 인한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민간수공업 영역이 점차 확대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

고려의 금은제 및 청자의 탁잔은 중국고대의 금속 및

청자상감국화문탁잔,
고려 12세기, 총높이 12.1㎝,
국립중앙박물관

칠공예에서 발생한 器型으로서 唐代 약 8세기에 금속제 탁잔에서 청자 탁잔이 발생하며, 이러한 제작기술은 고려가 遼와 대치하고 있던 10세기에 도입되어 遼와 宋과의 대외교섭에 의하여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된다.

탁잔형식은 탁과 잔이 분리되면서도 한 세트를 이루는 것으로 동아시아 각 지역의 구분없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형이다. 고려 이전의 탁잔은 앞에서 언급한바 있지만 무령왕릉 출토 동탁은잔을 비롯해 한반도에서 3점이 확인되지만, 접시에 가까운 넓은 원형의 탁, 잔의 뚜껑 사용으로 볼 때 고려의 花形탁잔과는 다른 형식이다. 대신 唐代의 茶具 중 茶托 혹은 탁잔이라 불리는 것과 비슷하다. 唐代 9세기에는 茶의 유행으로 茶鋌子·茶羅子·鹽台·籠子 등의 차를 마시기 위한 물품들이 다수 제작되었는데 그 중 茶托을 살펴보면 陝西省 西安 和平門 출토〈銀製雙層蓮瓣多托〉의 花形이 주목된다.

잔으로서 고려 탁잔의 잔과 비슷한 문양을 가진 예가 1992년 內蒙古 阿魯科爾沁旗 耶律羽之墓에서 출토된 〈金製五瓣花口杯〉인데, 이 杯에서는 잔을 5개의 꽃잎 모양으로 구획한 것과 잔의 구연부 처리가 고려탁잔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도자사에서 이러한 탁잔과 같은 기형은 주로 화북지방의 청자에서 나타나는데, 화북지방 중에서도 汝窯에서 집중적으로 제작된다. 제작시기는 주로 11~12세기인데, 정밀한 탁잔은 주로 12세기에 만들어진다. 한반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형은 銀器나 칠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초로 제작된 시기를 8세기로 본다.

고려의 금은제 탁잔 중 가장 시기가 이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은제도금국화문탁잔은 기본적인 육화형 형태에 잔과 2단의 받침으로 구성되었는데, 잔과 탁의 받침대 부분을 납땜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이는 『宣和奉使高麗圖經』卷 30 器皿의 '盤深의 모양은 모두 중국 것과 비슷하다. 단지 잔이 깊고 테두리가 내경되었다. 잔의 크기는 작고 발은 높다. 은으로 만들었고 간혹 금을 칠하기도 하였으며 꽃을 새겨 놓은 것이 정교하다.' 라는 표현에서 볼 때 이 탁잔의 기형과 제작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예로 보아 이 탁잔은 12세기에 제작된 고려 탁잔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경북대소장 은제연국화문탁잔은 현재 거의 갈색으로 변화되었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은제도금국화문탁잔과 같이 잔과 탁을 얇은 은판으로 만들었고, 기본적인 형태도 동일하다. 문양제작 기법에 있어서 点線彫技法이 사용되었으며, 잔좌에 나타나는 국화문표현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탁잔보다 간략한 타출로 표현되고 있어 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개인소장 은제첩화국화문탁잔은 잔좌에 타출기법 대신 타출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첩화기법을 사용하여 꽃 문양을 불규칙적으로 부착하고 있어 타출의 효과인 입체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식의 변화로 볼 때 13~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 청자 탁잔의 양식은 원래 중국 唐·遼·宋에서 발전한 금은제 탁잔과 청자의 영향에서 유래한 것이다. 고려시대에서는 먼저 금속제 탁잔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사용되던 유사한 형태와 문양을 갖춘 청자 탁잔이 많이 만들어졌다. 특히 잔 外口緣의 도드라짐이나 탁의 전 가장자리의 도드라짐은 금속제 탁잔의 范을 사용해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흔적이 청자에 남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대개의 경우 이러한 탁잔들은 잔, 탁 모두 굽을 따로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며, 주로 范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청자탁잔들이 많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 청자탁잔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盞座가 막힌 형태로 盞座와 전의 사이에 골이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김용두옹 소장품 중 하나인 靑磁象嵌菊花折枝文托盞처럼 盞座가 뚫려 있어 잔이 그 안에 들어가는 형태다. 고려시대에는 장식성이 없는 素文탁잔이 대부분 11세기에 제작되는 것을 비롯해 陰刻, 象嵌 등으로 장식을 한 청자탁잔은 12~13세기에 많이 만들어졌다. 특히 음각과 상감으로 장식을 하는 단계에 이르면 잔과 잔받침을 화형으로 만든 예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형의 탁잔은 같은 시기에 금속기로도 만들어져 청자가 금속기를 모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유행하던 화려한 장식의 금속제 탁잔과 비교하면 청자탁잔은 형태나 장식에 있어 단순하게 처리되었다. 장식이 있는 경우에는, 잔 탁과 잔 가장자리를 눌러 화형으로 만들거나, 잔의 벽을 둥글게 하지 않고 볼록한 면으로 처리한 것이 대부분이다. 후자의 경우 잔의 볼록한 면에 음양각 문양을 새기기도 하였다.

14세기 후반에 발생하기 시작한 분청사기에는 탁잔의 예가 그리 많지 않다. 고려 청자탁잔은 잔탁의 중앙 받침대가 오똑하고 굽도 높은 것이 보편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탁잔은 잔받침이 일반적인 접시형태이거나 김용두옹 기증 분청사기 탁잔처럼 잔 받침의 중앙 받침대와 굽이 낮아져 납작한 형태로 변한다. 게다가 백자탁잔의 경우는 받침이 납작한 일반 접시형태로 변한 예들이 적지 않다. 아마도 이런 조형이 고려시대 탁잔과 구별되는 조선시대 탁잔의 조형적 특성이 아닌가 한다.

고려에 도입된 탁잔은 금은제에서 먼저 시작되어 청자에 기술적 전이가 이루어지는데, 금은제와 청자에서의 기술적 발달은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동등하게 발달하게 된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유물로 볼 때 금은제 탁잔과 청자탁잔은 12세기에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운 다음 13세기 후반에 이르러 기술적 퇴화를 가져온다. 이는 무신란 이후 원과의 전쟁 등으로 문화적 및 기술적 교류가 중단되며, 국가주도로 운영되던 공납체계가 붕괴된 후 민간에서 수공업을 주도적으로 전담하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백제시대부터 한반도에 나타나는 탁잔이 고려에 계승되지 않고 단절되는데, 이는 백제 무령왕릉 등에서 나타나는 탁잔의 형태와 고려시대 탁잔의 형태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자에 간혹 그러한 예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특히 고려시대 탁잔에서는 보이지 않는 뚜껑의 존재, 탁의 전(托盤)의 형태와 탁의 규모 차이 등에서 고려와 그 이후 탁잔의 연결성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시대 발생한 탁잔은 통일신라 후기의 선종의 도입과 함께 飮茶風習의 유행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라는 점

에서 용도는 주로 찻잔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경우 우리나라에 차가 도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무령왕릉 출토 탁잔 등 3건의 탁잔 용도는 음다풍습에 의한 찻잔 용도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는데, 고려시대 이전 탁잔에 보주형 꼭지가 달린 잔 뚜껑의 존재와 함께 잔 탁이 고려시대 탁잔보다 매우 짧다는 것은 이들 탁잔의 용도가 국가적인 행사인 제례에 쓰이는 특수한 기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아직까지 고려의 탁잔과 이전시대 탁잔의 영향관계를 밝힐 중요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원광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綠靑磁 탁잔의 존재는 고려시대 이후의 탁잔과 고려탁잔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그 예가 아주 적은 분청사기 탁잔은 고려의 양식이 아직 잔존해 있는 시기에 탁잔이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어 고려와 조선의 연결고리 역할뿐만 아니라 양 시대의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고려의 금은제 탁잔이 잔과 전, 그리고 탁에 여섯마디의 꽃잎 모양 장식에서 출발했는데, 청자탁잔은 8~16개의 꽃잎형태로 다양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꽃잎 모양의 마디는 짝수를 기본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금은제 탁잔의 규모가 약 10~25cm 정도의 대형인데 반해 청자탁잔의 경우 5~15cm 이하로 대부분 제작되는데, 15cm 정도의 규모를 가진 탁잔도 예가 적어 금은제 보다도 소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금은제 및 청자의 경우 잔과 탁의 크기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받침대인 탁이 약 0.5~1배 정도로 약간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물의 안정성 및 사용상 편의성이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확인된 몇가지 예에서 보면 잔과 탁의 크기 보다는 오히려 잔과 탁의 지름 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제작되었다고 보인다.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에 소장된 청자탁잔의 경우 잔과 탁의 크기에 비해 탁의 지름이 약 2배 정도의 넓이로 제작되었는데, 이러한 잔과 탁의 지름이 넓게 만들어진 것은 잔탁의 용도인 음다풍습과 관련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우리회에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논문의 요지입니다.

동탁은잔, 무령왕릉, 백제, 전체 높이 15㎝, 국립공주박물관

은제도금국화문탁잔, 고려 12세기, 전체 높이 12.1㎝, 국립중앙박물관

분청사기인화국화문탁잔, 조선 15세기, 전체 높이 9㎝, 국립진주박물관

유물기증

베트남 도자기 구입 기증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박물관에 베트남의 청화백자 5점이 들어왔다.

지난 2월 23일 우리 회는 파리 크리스티 경매 때 구입한 청화백자대호 1점, 청화백자주자 1점, 청화백자접시 2점, 청화산수문화형접시 1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첫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기증품들은 베트남 黎朝時代를 대표하는 청화백자로 가장 안정되고 번성했던 15세기 중엽에서 16세기에 만들어진 뛰어난 도자기이다.

14세기 중엽 중국 원, 명초의 청화자기에 영향을 받아 제작된 베트남 도자기는 중국 원대에서 제작되기 시작한 청화백자가 주변 지역인 한국과 일본에도 전파되어 15세기에 만들어진 청화백자 비교에 중요한 자료이다.

베트남의 경우 고온에서 굽지 않아 완전한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청화라 하더라도 완전한 백자가 될 수 없었으며, 발색 또한 탁한 느낌을 주지만 문양이 다채로워 화사한 느낌을 준다.

한세트를 이루고 있는 청화백자 두 점 중 한점은 내면에 수초와 새우를 그렸고, 다른 한 점에는 하강하는 듯한 오리를 그려 넣어 그 미묘한 조화가 미소를 짓게 한다. 보통 물고기가 수초사이를 헤엄치는 것이 많은데 새우와 오리를 소재로 택한 것이 이색적이다.

청화백자대호에 그려진 모란당초문과 연당초문의 이채로운 조화는 베트남의 화려한 청화백자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도자기들은 오는 2005년에 개관하는 용산 새 국립박물관 동양영역 전시실에 전시될 것이며, 베트남 자기 구입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 문화재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증은 우리 회에서 녹청자 벼루, 화각함 등 기증에 이은 것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여러나라의 유물들을 수집하여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박물관 '올림픽' 축제

ICOM 2004 SEOUL 대회가 던지는 메시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004년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한국 현대문화사에서 획을 그을 만한 '박물관 페스티벌', ICOM 2004 서울 세계박물관대회(제20차 ICOM 세계대회)가 열린다. 1948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1회 세계대회를 시작으로, 3년마다 영국·이탈리아·스웨덴·네덜란드·미국·독일·덴마크·멕시코·아르헨티나·캐나다·노르웨이·(구)소련·호주 등지에서 대회를 개최해왔다.

ICOM은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국제박물관협의회 : 현 회장 자크 페로 Jacques Perot)의 약자다. 1946년 11월에 인류문화의 유물·유적과 환경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전승하며,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박물관의 사업과 활동에 협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ICOM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건물에 본부를 두고, 그 산하에 29개 전문위원회를 둔 비정부기구(NGO)다. 현재 150여 개국 19,000여 명의 회원이 있고, 우리나라는 1976년에 가입했다.

문화관광부와 서울특별시·경기도·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토지공사·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고,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서울대회의 주제는「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Museums and Intangible Heritage)」이다.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에 김병모 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를 구성했고, 자문위원회·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박물관·루브르 박물관·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 세계 유명 박물관의 관장과 큐레이터 및 박물관 관계자뿐 아니라, 역사문화와 인류학 등 국내외 전문가 약 2,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서울대회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세계 전문가들의 학술대회, 박물관 운영의 과학적 합리적인 방향 모색이라는 의미 외에 글로벌시대를 맞이해 세계의 한국연구가 다각도로 촉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의 키워드는 문화외교에 있다고 할 수 있다.(ICOM 2004 SEOUL 대회 조직위원회)

문의 | ICOM 2004 SEOUL 대회 조직위원회(http://www.icom2004.org / 02-735-70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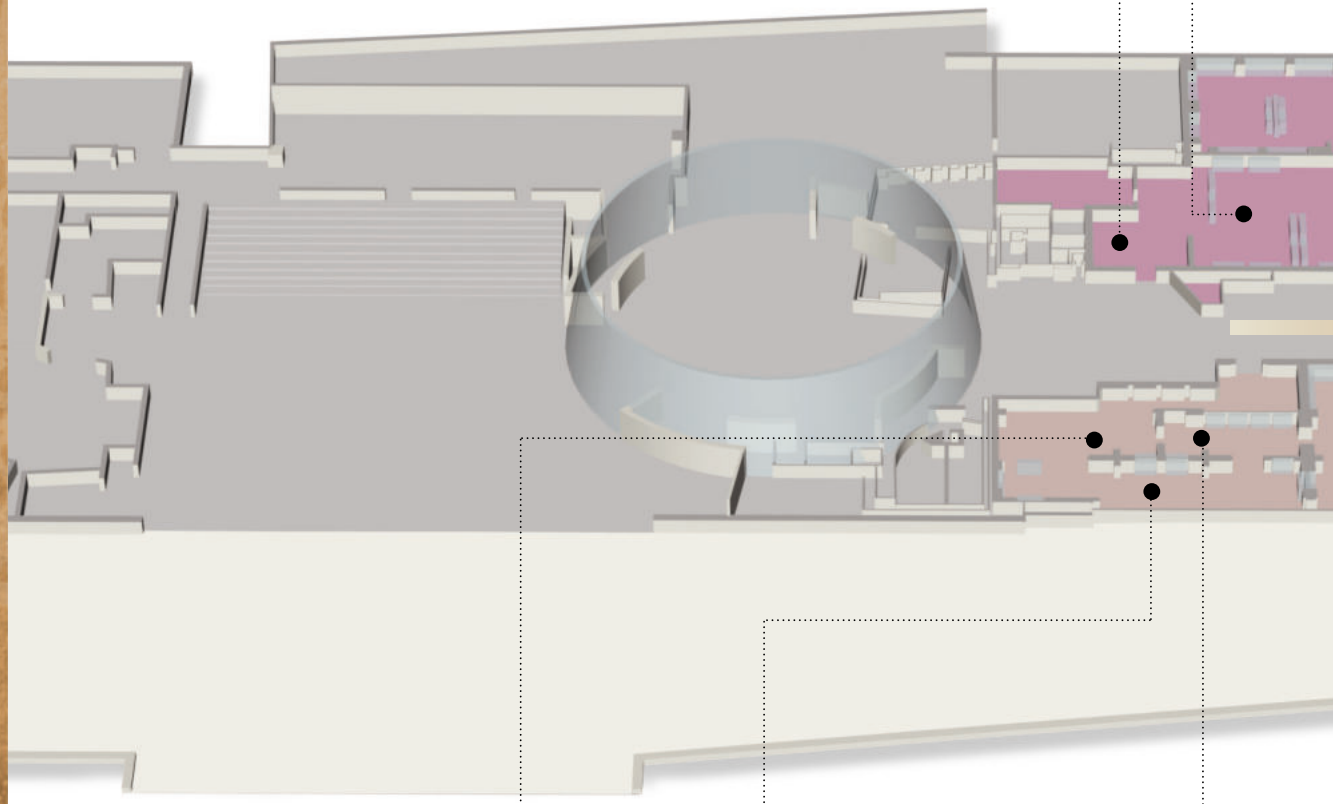
전시 1F

고고관
역사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고관과 역사관이 자리잡고 있다. 구석기 시대부터 발해까지 11개 전시실로 이루어진 고고관은 우리 고대문화를 명품 위주로 전시하여 고고박물관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왕실과 국가, 종교사상 등 9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역사관은 우리 역사의 발전 과정과 특징을 관람객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종교사상
137.13㎡
94점

대외관계
273.08㎡
54점



청동기/
초기철기실
336.15㎡
621점

신석기실
289.74㎡
967점

구석기실
127.18㎡
366점

사회경제
226.86㎡
326점

왕실과 국가
559.95㎡
144점

고지도실
343.10㎡
128점

고문서실
122.95㎡
260점

한글
202.05㎡
286점

고인쇄
185.26㎡
2,66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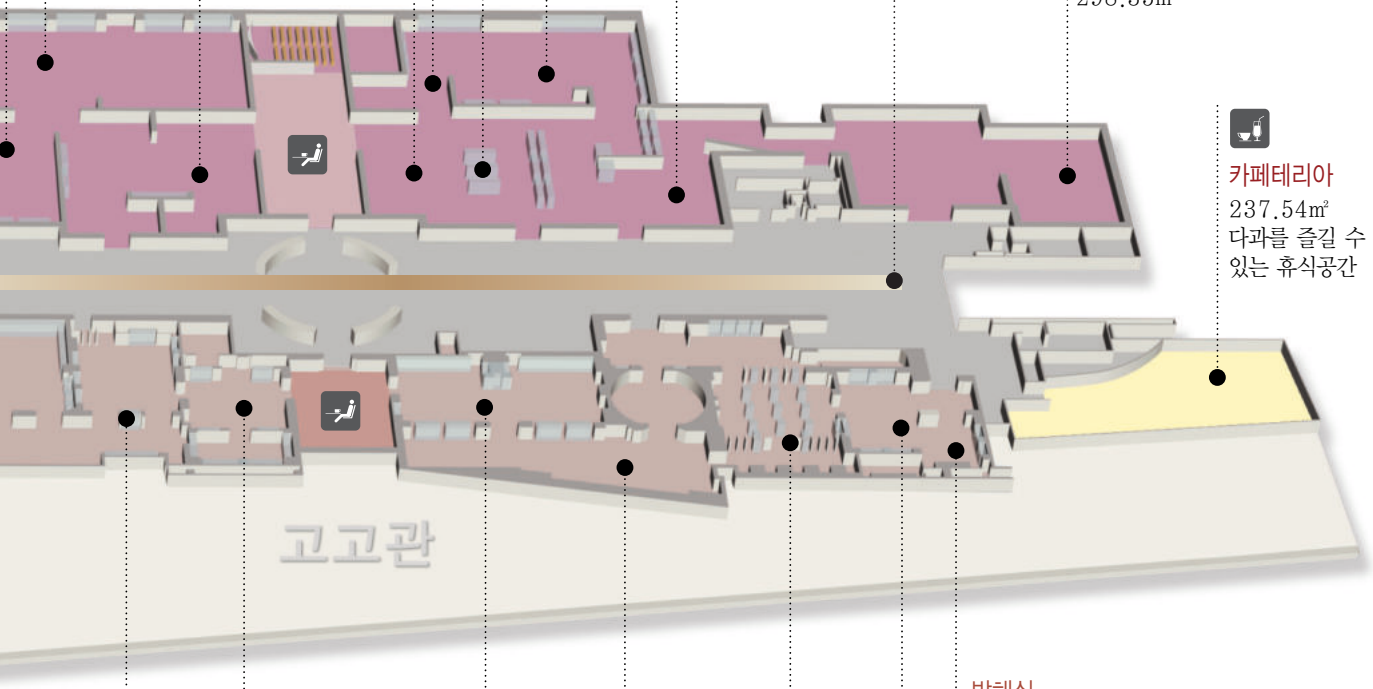
역사의 가로
2,856㎡

예비실2
934.43㎡

금석문
402.67㎡
94점

예비실1
298.35㎡

역사관



카페테리아
237.54㎡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고고관

고구려실
230.59㎡
168점

발해실
약 33㎡
10점

삼한/
고대국가형성실
390.02㎡
606점

백제실
297.36㎡
702점

가야실
320.57㎡
623점

신라실
507.89㎡
646점

통일신라실
237.54㎡
258점

한국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鍾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회장을 거쳐 **2002**년 **11**월 兪相玉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兪相玉
副會長 | 李京姬 · 許東華
理　事 | 李健茂 · 金容元 · 金宗圭 · 朴魯壽
朴容允 · 徐載亮 · 李福衡 · 李仁洙
全晟雨 · 鄭良謨 · 池健吉 · 千昞玉
千信一 · 崔永道
監　事 | 權泰宣 · 李起雄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 · 평생 · 영구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 · 금관 · 은관 · 청자 · 백자회원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 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 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 원, 은관회원 삼천만 원, 청자회원 일천만 원, 백자회원 오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 은관회원
兪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청자회원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 관장
金榮秀　변호사
玄明官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永珹　김&장 법률사무소
徐載亮　아름지기 상임이사
田永採　전 해피아이 회장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韓奉珠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千信一　세중옛돌박물관 관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30__gomuseum@hanmail.net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지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 · 교육 · 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전시지원** |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준비와 행사 등을 지원한다.

■ **연구지원** | 발굴조사, 학술연구 조성비,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돕는다.

■ **교육지원** |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박물관신문을 지원한다.

■ **유물기증**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암각화모형, 청자벼루, 18세기 노안도족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열장과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을 구입 기증했다.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 · 답사를 다녀와서 · 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싣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8매 정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3년 이상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 중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 **전시실 자원봉사**
특별전시 안내 | 특별전 기간 중 국내외 일반인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청소년 학습지도 | 중 · 고교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전시실 현장학습
상설전시 안내 |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 **유물정리 자원봉사**
발굴조사 유물정리 | 발굴유물의 세척, 유물등록 · 실측, 토기편 맞춤, 복원작업
자료정리 | 사진 · 도면 등의 정리
발굴현장조사 | 발굴현장에서 세척, 약실측, 정리, 분류 등을 보조

■ **회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 · 원고 수집 정리 · 디자인 작업 · 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 · 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 **2004년 ICOM서울총회 자원봉사**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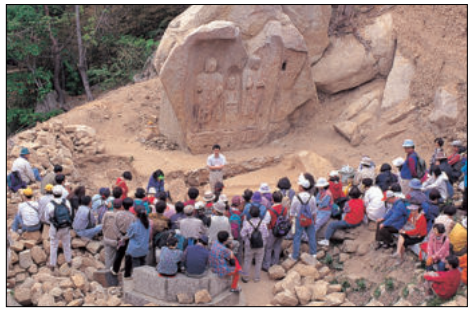
문화사업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출판과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홍보한다.

■ **출판** |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쇄물과 CD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한국고고학미술사요해, 한국미술오천년 영문판, 동원수집문화재 1집, 동원수집문화재 2집, 동원수집문화재 3집, 동원수집문화재 4집, 고려청자명품 도록, 박물관신문 축쇄판 2집, 실크로드미술 특별전도록, 한국전통문화, 즐거운 박물관여행, 한국전통문양 1집·CD,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도록,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 유리원판도록, 한국전통문양 2집·CD, 한국전통문양 3집,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미술 특별전도록, 영혼의 여정 특별전도록, 서역미술 특별전도록 등을 발간했다.

■ **문화상품** | 우리 문화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살린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관람객 편의** | 박물관 관람객에게 편의시설과 전시실 홍보자료를 지원한다.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특설강좌** |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여 명을 배출했다. 매년 화·목요반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 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 150여 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 **연구강좌** |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했고, 1997년 특설강좌 기수별 스터디그룹을 통합·재편해 운영한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사·미술사 등 6개 반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각 반은 200여 명으로 매년 1,2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 1975년부터 시작해 30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의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답사를 운영한다.

■ **학술강연회·발표회** |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이 책을 만들면서

정을 쏟고 사랑한 만큼 보이더이다. (화)

가다보니
보게되는가 싶더니
보이는군요. (水)

水面위로 떠오른 한 송이 연꽃.
초췌해 보인다.
수면아래 살이, 그 고단한 흔적이
그늘로 드리워졌음인가. (海)

화사한 봄내음을 흠뻑 마시고파! (世)

궁궐의 와당은 北岳을
향해 줄지어 뻗었건만
빛바랜 낮달은
수표교만 내려다 보고……(山)

배를 타 보면 안다.
모든 물에는 흐름이 있음을.
어떤 만남이 있을지 어떤 슬픔과
기쁨이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흐름에 몸을 맡길 뿐.
가끔 누워서 별도 보면서…… (진)

마츄피츄에 남긴 발자국이
오랫동안 남아주었으면…… (경)

박물관 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제5호

발 행 일 | 2004년 3월 15일
발 행 처 | 한국박물관회
발 행 인 | 유상옥
기 획 | 신병찬
편집회원 | 손이화 안해옥 오세화 유건집 진수옥 최경자
진 행 | 이홍표 이진성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전 화 : (02) 398-5193 · 730-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 **표지그림 이야기**

감은사지에서 출토한 인동보상화문수막새는 균형미와 더불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통일신라의 수준 높은 기와공예품이다. 13과의 연자, 자방 주위에 배열된 꽃술대, 보상화문 끝단과 사이사이에 활짝 핀 꽃, 그리고 주연부에 둘러진 연주문과의 조화로움이 퍽이나 이채롭다. 통일신라와당은 아름답다 못해 현란할 지경이다. 출토지 미상의 연화문수막새, 감은사지에서 출토한 인동보상화문수막새, 벽사의 상징인 귀면와, 분황사 출토의 조문수막새 등에서 보여지듯 주제 또한 다양하게 펼쳐진다.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Sejong-no 1, Ch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 (02) 398-5193 · 730-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